

찬양과 기도의 달
선교주일

꿈이 있는 교회

성감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말씀이 들리면 축복,
 믿어지면 은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10:11-18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570장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통일찬송가 453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홍현근 집사, 구은강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마라나타 주 예수여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유동숙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11:17-12:21

은혜를 기억할 때와 잊을 때: 요아스의 신앙개혁과 변절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 ▶ 9월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찬양과 기도의 달입니다.
- ▶ 삶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치유받고 기도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1.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CUMC 소식: “Work Day”였던 지난 주일 오후 CUMC 의 사택 정원관리에 참여해 주셔서감 사합니다. 어제 CUMC의 전교인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CUMC의 Service Day 입니다.
3. 교회 Lease 1년 연장/재계약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17 주간 성경 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 줍시다.
5.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6. 다음 주일 오후 5 시에 3 주년 감사찬양집회를 가집니다. 준비를 위한 찬양팀의 헌신, 집회를 위한 Relay 기도와 교우들의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교우동정 : ▶ 김영은(김훈태 / 신실 집사 딸), 1년 계약으로 프랑스로 출국
▶ 김수지 가족(김태성 집사 / 정줄리 권사 딸), 부모님 방문중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9/30	10/7	10/14	10/21
	김훈태집사	최선운집사	구민집사	박진성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0/5	10/12	10/19	10/26
	유동숙집사	박진성집사	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
주일헌금위원	9/30	10/7	10/14	10/21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정줄리권사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정줄리권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 요한복음 9:1-14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서 시력을 회복한 사건을 통해 본질과 비본질, 핵심과 비핵심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마음을 비본질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을 가진 반면,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따졌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을 범한 것으로 정죄했다. 제자들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사랑을 놓쳤고, 종교지도자들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쳤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판단과 정죄를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본분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즉, 복음이고 사랑이다. 비핵심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한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 요한복음 10:11-18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첫째, 양을 잘 아는 목자입니다.

둘째,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셋째,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목자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 요한복음 10:11-18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 살펴 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세 가지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과 같이 오랜 시간과 친밀함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이고도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며,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양들에 대한 목자의 개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목자가 얼마나 많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 주었으면, 양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신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둘째,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양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이미 양 무리 안에 있는 양들과 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가운데 아흔 아홉 마리의 양들을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혼자 힘으로 길을 찾아 양 우리로 돌아올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우리는 양 우리에 들어왔지만, 시시 때때로 양 우리를 벗어나 길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셋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 하루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찬양과 감정

“감정이 무너져 있어, 예배 시간에 찬양하기 싫어요”

오래 전 주일 오전 예배 찬양을 매주 인도했는데, 평소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던 한 집사님이 그 날따라 맨 뒤에 앉아 찬양을 하지도 않고 인상을 쓰며 있는 것이 보였다.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에게 가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집사님은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먼저는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나서, 따로 진지한 권면을 드렸다. “집사님,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집사님이 오늘 마음이 어려우시니까 찬양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어려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 놓고 찬양하는 것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양하면 다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집사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예배당에서 평평 우셨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피곤하고 예배시간에 늦은 것 때문에 찬양시간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여기서 ‘예배할지니라’를 헬라어로 따져 보면 원어상 명령어이다. ‘할지니라’, 이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다. ‘찬양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다 명령어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찬양과 관련된 용어인 ‘할렐루야’는 ‘할렐(찬양하다)’, ‘우(접속어)’, ‘야(여호와)’라는 명령어이다. 이 단어가 성경에 99 회나 등장한다. 시편 기자들의 ‘찬양할지라도’도 명령어로 되어 있다. 이렇듯이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안에서 뿐 아니라 항상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 그 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명령을 기쁨으로 여기며 찬양할 때 노래로 찬송하며, 몸으로 춤추며,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찬양팀은 예배 안에서 예배자들이 이 명령에 잘 순종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예배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나님과 예배자들을 중계하는 역할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찬양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나아가 예배/찬양팀은 특별히 훈련되어야 하며, 예배/찬양팀이 먼저 찬양 중 경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백성훈 목사, 『팀사역의 원리: 예배팀 운영의 실제』 중에서 -

한 주의 기도

주님, 한 주 남았습니다. 3 주년 감사찬양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해지고 서로 다른 생각과 차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져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삶이 되어 버린 불평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결핍은 하나님 혹은 다른 이를 향한 불만과 불평으로 나타난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계속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갇히자 마자, 투덜거리며 왜곡된 기억을 끄집어 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불만스럽게 대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언약을 통해 그들을 구하시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평으로 인해 깨졌다는 사실이다.

투덜거리는 말은 공동체 안에 쉽게 전염된다. 토로하는 불평과 불만이 몸에 뱌 수도 있다. 그것은 쉽게 습관화되고 곧 모든 것이 성에 차지 않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선물에 더 민감해지지만, 불만이 있으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둔감해진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등장 인물인 교사는 불평이 몸에 뱌 불행한 여인을 이렇게 말한다. “불평의 껍데기 아래 실제로 사람이 있다면…우리는 다시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겁니다…처음에는 불평하는 기분으로 시작하지요…후회하고 거기서 빠져 나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더 이상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그때는 그저 불평 자체가 기계처럼 영원히 반복될 겁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불평하기란 쉽다. 문제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불평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이 모였다 하면 싸움 이야기를 하거나 힘든 교인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 놓는다. 그러나 본회퍼는 지도자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고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를 맡기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욕심과 씨름하고 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분이 주신 것을 거절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분의 지혜나 선하심을 얼마나 자주 의심했는가? 이것이 과연 감사인가?”

- 크리스틴 폴 『공동체로 산다는 것』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